무용 관객 확대를 위한 세분된 정책 접근
Proposal for Expansion of Dance Audience

김 충 언
경희대학교

Kim chung-eon
Kyunghee Univ

요약

무용관객의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의 제대로 된 기능과 콘텐츠 개발 그리고 공연지원 제도 정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연 관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분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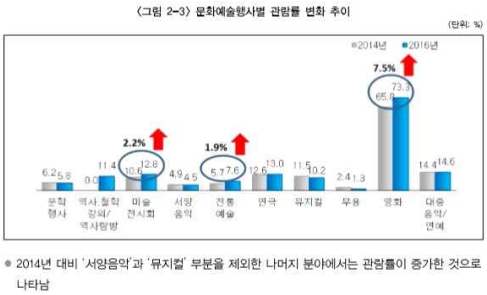
Ⅰ. 서론

무용관람률은 예전부터 1~2%대 머물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극복과 방안은 십 수 년째 마련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무용분야의 관람률은 여타 순수 문화예술에 비해서도 현저히 뒤처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관람을 하지 않는 이유 주된 이유로 관람비용이 비싼 부분을 들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작품 질적 향상을 원하고 있다. 이에 관람 확대를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세분된 정책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Ⅱ. 본론

1. 문화예술행사별 관람별 변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16년 문화예술행사별 관람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영화분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들이 큰 증가율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무용분야는 2014년 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뮤지컬, 무용, 서양음악 순으로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서양음악과 뮤지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증가한 것으로 잘못 보고되어 있기도 하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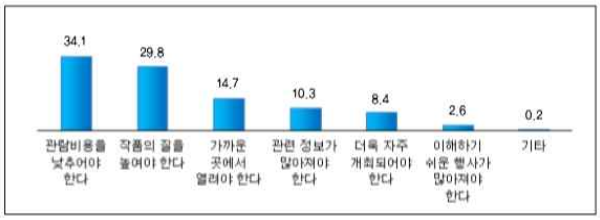
● 2014년 대비 '서양음악'과 '뮤지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관람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림 1. 문화행사별 관람률 변화 추이

2. 문화예술행사 보완이 필요한 부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람비용을 낮추고,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나타나고 있다. 관람 비용은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나 작품의 질은 수출되는 콘텐츠가 적어서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십 수 년 반복되는 보완점이 아직도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관람객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적극적 지원 정책변화가 필요해 보인다.[2]



▶▶ 그림 2. 문화예술행사 보완이 필요한 부분

Ⅲ. 결론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관람하지 않는 원인으로는 관람비용이 비싸며, 콘텐츠가 열악한 것을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관객 확대를 위해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으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미래 잠재 고객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의 참기능이 필요하다.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 콘텐츠의 검증과 발전을 통해 거쳐 재미와 창의, 참여를 동반한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연지원 제도 정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연 관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1991년부터 공연 관람료를 일부 지원하던 사랑티켓 제도가 2016

년도 종료되어 관람문턱이 더 높아진 현실이다. 현재는 이와 비슷한 저소득 문화소외계층에 지원하는 통합문화 이용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제대로 된 공연을 제공해서 비싸서 관람을 못한다는 이유를 줄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연을 제작하는 단체들도 질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 귀를 가지고 관객과 소통의 장과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문화관광부 “2106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제1권, 제1호, p.24, 2017.
[2] 문화관광부 “2106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제1권, 제1호, p.29, 2017.